

한지 그림 매력에 빠져보아요

손끝과 종이의 자연스러운
조수정 한지갤러리 무료강좌

“한지에 그림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한지 그릇에 그림을 그린다?”

처음 의아하게 생각하던 사람들도 한지 그림 갤러리를 방문해 그림을 보고 나면 입을 다물지 못한다. 섬세한 손놀림과 한지 고유의 자연스러움이 어우러진 미학이 찾는 이들의 눈길을 사로잡는다.

전통 한지에 화학물질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천연염료만 색을 낸다. 이를 손으로 찢어 붙인 그림이 바로 한지 그림이다.

단순한 옛 종이로 평가 받기 일쑤인 한지, 한지는 다나무 껍질을 가공해 손으로 만든 종이를 일컫는다.

한지는 우리 고유 전통 종이로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다. 특히 서양 종이와는 다르게 은은하면서 푸근한 기운을 풍길 뿐만 아니라 부드럽고 질긴 특성으로 일상생활과 밀접한 생활용품이나 의생활에 주로 사용됐다.

이런 한지 속 우리 겨레의 삶과 슬기를 세계에 알리고자 하는 이가 있다. 불자 조수정 한지연구회 회장이다.

조 회장은 1985년 서울 동방플라자에서 한지그림 문화교실을 열고 한지공예를 시작했다. 전통문화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던 당시 KBS 등 주요 언론 매체에 소개되며 국민들에게 한지의 세계를 알렸다. 28년간 조 원장에게서 한지그림을 전수받은 이들이 수만 명에 이르고 공식 사범만 500명에 달할 정도다.

최근 조 회장은 서울 대치동에 ‘한지그



한지작품 '민들레'



작품 '옥락조'



조수정 회장

림갤러리'를 새로이 개관했다. 무료로 운영하는 갤러리에서는 천연염색을 비롯해 한지와 관련된 공예기법이 전수된다.

또 한지그림갤러리에는 다양한 한지 상품들도 눈길을 끈다. 한지로 만든 도자기 찻잔, 접시, 다관 등을 비롯해 넥타이, 머플러, 핸드폰줄 등도 전통한지와 돼지가죽을 이용해 전통기법이 선보인다.

조 회장이 지켜온 전통기법은 장르에 구애받지 않고 모든 표현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남녀노소 모두가 자신의 감각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고 창작 작품을 생활용품에 활용할 수도 있는 장점이 있다.

새해를 맞아 이 곳에서는 한지그림 강좌를 연다. 부채만들기, 식탁매트 만들기, 부채를 비롯해 직접 한지 그림을 체험하는 프로그램이다. 매주 화·목·금요일 오전 10시 30분~12시 30분, 오후 2시~4시 한지그림 강좌를 개설한다. 강좌가 없는 날에는 인터넷 전화를 통해 예약후 한지그림 갤러리를 방문하면 한지공예를 체험할 수 있다. 조수정 회장은 “불교용품은 비롯 한지를 이용한 새로운 생활예술품을 통해 한국 전통을 알리는데 일조하고 싶다”고 말했다. (02)501-1505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문자로 잊혀진 역사를 읽다

국립경주박물관 이차돈 순교비 등 '고대의 문자를 읽다'展

국립경주박물관(관장 이영훈)은 2월 12일까지 특별전 '고대의 문자를 읽다'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개최했던 '문자, 그 이후' 특별전을 바탕으로 새롭게 재구성한 전시이다.

전시는 고대의 문자를 살펴보면 역사 자료로서의 의미와 그 맥락, 해석 등을 생각해보는 시간 등 4부로 구성됐다.

제1부 '한자의 수용'에서는 중국의 나라들과 갈등을 겪거나 교류하면서 한자를 접하기 시작하던 모습을 소개한다. 고조선에서 받아들인 중국의 명도전, 반량전 등의 화폐와 명문 청동기를 볼 수 있다.

제2부 '통치의 기록'에서는 고구려, 백제, 신라에서 왕을 중심으로 한 지배층이 문자를 통해 수단으로 활용했던 사실들을 살펴본다.

제3부 '불교의 기록'에서는 불교 유입과 동반해 문자가 더욱 널리 쓰였음을 알 수 있는 자료들이 전시된다. 불교의 미술품 중에는 명문 기록이 남겨진 경우가 많아 관련된 상황을 자세하게 살펴보는 데 큰 도움을 준다. 황룡사 구층목탑을 만든 경위와 탑을 수리한 기록들을 새긴 경주 황룡사 목탑 찰주본기가 그러한 예이며, 장흥 보림사 석탑지, 이차돈 순교비 탁본 등의 유물들을 볼 수 있다.

제4부 '생활의 기록'은 문자가 폭 넓게 활용되면서 생활과 관련된 기록이 많이 남겨졌음을 살펴보는 자리다. 일반적인 내용을 기록할 때에는 종이보다 나무를 깎아 만든 목간을 더 많이 사용했는데 이 목간에는 각종 요리재료들과 장류, 젓갈, 약재 등이 쓰여져 고대인의 생활 모습을 볼 수 있게 했다. (054)740-7500

이어나 기자 oasis1983@hyunbul.com



경주 황룡사 목탑 찰주본기, 통일신라, 세로 22.5cm

박재완 기자의 불교사진이야기 화택(火宅)



힘든 세상이다. 집을 나선 아이들이 학교에서 죽을 생각을 하는 세상. 태풍을 견디지 못한 낙과처럼 입을 수 없는 유서들이 빙글리는 세상. 문 밖에 무엇이 있기에 밤보다 낮이 더 무섭고, 저녁이 되어도 두 다리보다 마음이 더 고단할까. 힘든 세상. 나는 나여서 너는 너여서. 속세는 속세대로. 산중은 산중대로. 생각은 만 가지.

또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됐다. 불타는 집은 여전히

다. 아니 점점 더 뜨겁다. 금오선사 범문집 <꽃이 지니 바람이 부네> 중에서 가져다 쓴다. “괴롭고 괴롭다. 고해(苦海) 중에 빠진 몸이여! 화택 중에 타는 몸이여! 괴롭고 뜨겁구나. 천하의 인류가 끝내는 어디로 가는가. 세상만사를 살펴봐도 모두 허망하고 괴로울 뿐이다. 백천 가지 고통 중에도 유독 생사의 괴로움이 제일 크구나.” 산중의 까치집에도 아침이 밝는다. 이미 까치는 벌써 나갔다.



편집국 사진부 차장

한국의 선시(詩)가상 조선 남악태우 선사의 '비운 뒤 언덕에 올라 감회를 읊음[雨後登阜懷愴]'

눈 앞 경계 모두 허망함을 알아버렸네

雨霽長空露太陽 (우제장공로태양)
碧天虛鑿正蒼蒼 (벽천허활정창창)
淫氣洗盡江山靜 (음기정진강산정)
景氣清纖世界彰 (경기정량세계장)
今日始知前境妄 (금일시지전경망)
昔時空被外塵傷 (석시공피외진상)
游眸四海無纖縷 (유眸四海無纖縷)
萬象皆吾一器量 (만상개우일기량)

비개인 높다란 하늘 태양 드러나고
탁 트인 파란하늘 정말로 아득하구나.
칙칙한 기운 다 씻기니 강산이 깨끗하고
햇살 맑으니 세계가 선명하네.
금일이야 비로소 앞세워. 앞의 경계 허망함을
옛날 헛되이 바깥모양에 손상 입었네.
눈길 사해에 두니 작은 구름도 없는데
온갖 양태가 다 나의 한 기량이로다.

조선 남악태우(南岳泰宇; ?~1732) 스님이 비가 개인 후에 포행하며 지은 시이다. 이제 막 비 그치고 드러나는 태양과 아득한 푸른 하늘, 비로 인해 칙칙하던 기운이 씻어져 온 산은 깨끗하고 햇살은 맑고 선명하기만 하다. 이러한 풍광은 제 스스로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니라 실은 스님의 마

음거울에 비친 모습이다. 스님은 지난날 바깥대상에 마음을 빼앗기기도 하고 마음에 상처를 입기도 했다. 이제 눈 앞 경계가 모두 허망해 실답지 않음을 알아버리니 눈길이 가는 모든 곳에 실낱같은 걸림도 없다. 모두 내 마음에 달려 있을 뿐이다. 실제 없음을 절견(徹見)한

스님의 기량을 드러내 보인 대목이다. 어느 한 청신녀가 어른스님의 뒤에 후광이 빛나고 있는 것을 보고 존경심과 환희심이 우러난다 했다. 어른스님께서서는 “뒤에 후광이 있는지 나는 모르겠다. 아마도 보살님이 그러한 눈으로 보아서 그럴 것”이라 말했다. 이 시에서 강조한 ‘대상은 내 마음의 투영된 모습일 뿐’임을 보여준 예이다.

새해가 또 시작됐다. 불안(佛眼)으로 보자면 해[年]이 있으리마는 우리들이 새해를 설정해 놓고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더 나은 나의 마음도량을 가꾸기 위한 바람이 기도 할 것이다.

새해에는 나의 마음거울을 바로 보아 모든 대상에서 자유로울 수 있기를 바래본다.



원법 스님(은문사 주강·조계종 교수사리)

백초귀장술

조상을 제대로 뵙으면 천도재 권하기가 쉽습니다

찾아온 시간으로 왜 왔는지, 무슨 귀신 장난인지 상대방 마음 꿰뚫어 보는 법
집안동토탈 알아내는 법
산소탈 원인 알아내는 법

귀신뵙는 래정비법으로 복잡하지 않고 간단히 알 수 있는 비법공개!
60갑자 일진별로 한눈에 쏙쏙 알 수 있게 초사를 확실하게 설명!

著者 白超 백초스님 ① 신국판/양장본/567쪽/정가 120,000원 ② 신국판/양장본/712쪽/정가 120,000원

自超律曆學堂
전화 [041]943-6882, 010-3813-4443

입금 계좌: 023-02-500940
예금주: 임현주

사찰 연등 및 전선 (법당용 외곽용)

초심의 자세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불자 기업입니다.

특징: 기법고 설치가 용이

원터치 고리용, (인등) 소원성취 및 사리함

SMD LED전구(국산정품) AC 220V

불제개원기업

구입문의 (031) 986-0277~8 (02)2266-2634, 2263-2638
구입문의 (032) 582-6235~6 구입문의 H-P 011-630-7092
http://www.bulje.co.kr 본사공장: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석모리 281-1

전선간격

22cm, 25cm, 28cm, 30cm, 40cm, 50cm, 1M, 2M, 3M, 5M, 8M, 10M 기타주문

생산에서 시공까지 책임지겠습니다.

SMD LED전구(정품) 220V용

- ▶ 고추전구, 방수전구(정품) (법당용) (외곽용)
- ▶ 반도체로 되어 화재와 전기소모가 거의 없고 반영구적이다.

건전지용 초(정품)

- ▶ 방생, 탐돌이, 각종 행사용에 적합
- ▶ 아주 밝은 건전지 초 (LED용)
- ▶ LED전구, DC 9V 백색, 노랑, 빨강

청사초롱 및 초롱 걸이대

연등(정품)

법당등(공단등), 영가등, 오색등, 황금등, 주름등, 특수등

권사찰, 법당, 외곽, 연등용 전선 시공